죽기전에 봐야 할
우리 만화시리즈 2탄
동
글 : 민 / 그림 : 백승훈
〈 96 〉

안 돌아오면?
그래도… 일반인을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동진고 학생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고마워. 인범아. 너한테 의지 많이 할 것 같아.
형님. 그 교생 말입니다. 빙까지 따로 내어주시고 대접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ArabiA night club
아이들의 불만도 큽니다. 이정우… 항명하고 사라진 놈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꽈아
맹랑하다! 감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애송이 이정우만을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동생들 불만이 큽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 다 모아. 한마디 할 테니까.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안다.
날 믿어라.
나는 이정우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중 어느 누가 사라져도 나는 똑같이 대할 것이다.
알겠나?
예.
어차피 토요일까지다.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 불만 가지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자식들이! 목소리가 왜 이래? 똑바로 대답 안 해?
예!
척
와아… 건물 전체가 단란 주점이야? 호텔이네, 호텔.
넌 여기 있어. 혼자 할 테니까.